

“국내 넘어 세계 초일류도시로”… 대전시 ‘2048 그랜드 플랜’ 가동

“2048년은 개척자·이민자 도시였던 대전이 대한민국 발전 주도”



▲ 이상우 대전시장이 11일 대전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2048 그랜드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이상우 대전시장은 2048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미래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대전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1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2048 그랜드플랜 브리핑에서 “대전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과학·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으뜸인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과 전략으로 대전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의 2048년 미래상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초일류도시’이다. 1950년 대한민국 임시수도였던 대전이 미래에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어떤 도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과학·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으뜸인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목표는 대전의 정체성과 시민들이 바라는 대전의 미래모습을 담아 ‘사람과 문화, 과학과 경제를 하나로 있는 창의융합 도시’로,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선보였다.

5대 전략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혁신거점 도시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조연결 교통도시 ▲지구와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환경복지 도시 ▲다양성이 경쟁력이 되는 개방적 창의 도시 ▲지역과 함께 누리는 균형발전 도시이다.

대전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10대 핵심과제는 ▲충청권 신성장산업 융복합밸리 조성 ▲초광역 일체교통망 구축을 통한 세계 최정상 조연결 메가시티 실현 ▲

대전 동북부권 신성장거점 도시 조성 ▲대전역 지하입체복합개발 ▲융합기술기반의 글로벌 과학혁신 협력특구 조성 ▲신 우주국방 과학기술 거점 조성 ▲미래 신에너지 트윈 거점 도시 조성 ▲글로벌 인재 허브 도시 ▲문화예술 창의 거점지구 조성 ▲한밭사계(四季), 산수정원(山水庭園) 도시 조성이다.

10대 핵심과제에 지원과 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대전을 경제, 과학, 문화, 환경,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플랜’은 정권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일관되고 확고한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대전세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주)유진도시건축연구소가 컨소시엄으로 연구하고, 대전시민과 청년, 미래학자, 전문가, 자치구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민선 8기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거치고, 지난 12월 언론인들의 목소리도 청취하여 최종 마련했다.

이 시장은 “대전 그랜드플랜은 이제 계획이 아닌 행동이다. 대전만의 단단한 그랜드플랜이 수립된 만큼 로드맵에 따라 과감하고 거칠없이 실행해 나가겠다”며 “개척자들의 도시 대전이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 100년을 만들고,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태선 기자

정부 ‘미복귀 전공의 법·원칙 적용 불가피… 지금이라도 복귀를’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모두발언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 관리본부장)은 11일 “정부는 지난 주부터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다”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주변의 낙인이 두려워 복귀에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변의 압박보다도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들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반대하는 교수진들의 사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사가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 어떠한 목소리도 환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며 전공의들의 반대가 길어지면서 현장에서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와 환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대학교와 수련병원에서는 의대 증원에

덧붙였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에게 귀중한 사회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 가치 아래, 의사들의 공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하는 이유는 의사에게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여야 할 엄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은 송고한 의료윤리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병원으로 향해주신 의료진들의 값진 발걸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분들도 의료인으로서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부디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정복 기자

별출연받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13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도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며, 벤처에는 기존 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0배 확대·출자해 1000억 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정책을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 기업 전체에 철저하게 안내·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도청사에서 종이컵 54만 개 분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축하고, 시군·공공 기관·대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라며 “13일 종소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공공기관 직무성과계약 체결 및 업무보고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외형적인 경영 효율화는 완료됐으나, 도정 철학을 공유하고 관련 실국과 함께 긴

밀하게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라고 지적한 뒤 “금번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올 한 해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연동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실국과 친밀이 넓어지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밖에 △산불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의사집단행동 관련 병원 지원 방안 등 파악·추진 △포트홀 긴급보수 신속히 추진하여 재정 집행 효율성 고려 △3040 정책 테마 해외연수 의욕 있는 공무원 우선 선정해 파견 △내포 농생명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 신속 추진 △2025 아시아·태평양 챔버리대회 유치 준비 월자 대회 기업·글로벌 기업 취업 콘서트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구성 운영 △일본 나라현에서 내년 개최 예정 음악회 K-팝 우수성 확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 △부남호수질 개선 신뢰 추진 △농촌 폐기물집중 수거 정례화 △축산시설 현대화 편도 조성 계획 수립 △갯벌 생태계·식생 복원 추진 효율성 강화 등도 추가로 주문했다.

김정환 기자

“미래모빌리티 신산업 육성 적극 대응”

김태흠 지사, 실국원장회의 강조… 생활 속 탄소중립 확산 주문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미래모빌리티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충남에서 이뤄지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종회의실에서 개최한 제53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태안의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고, 대통령께서도 충남을 미래모빌리티산업 중심지로 육성을 약속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현대차와 미래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서산·태안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민관, 소관 실국에서는 충남의 미래 50년, 100년 면거리를 준비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미래모빌리티 산단조성, 관련 기업 유통망을 통한 접목화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미리 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또 “지난달 21일 농협 47억 원에 이어, 오늘 하나은행에서 40억 원을 특

(6.5%p↓), 서울(3.5%p↓), 인천·경기(1.0%p↓) 등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5.7%p↑), 대전·세종·충청(4.0%p↑), 광주·전라(2.2%p↑) 예상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4.1%p↓)에서 떨어졌고, 보수층(2.7%p↑)에서 올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부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1.9%p, 응답률은 4.1%였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 대비 4.8%p 내린 41%, 더불어민주당이 4.0%p 오른 43%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 양당 간 차이는 1.2%p로 두 정당의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응답률은 3.9%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복 기자



청년마음건강연구소 C-LAB 씨랩

내 마음도 미리 검진하세요 [성향검사 / 팀빌딩 / 강연 / 온라인상담]

instagram 인스타 @c.lab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씨랩마음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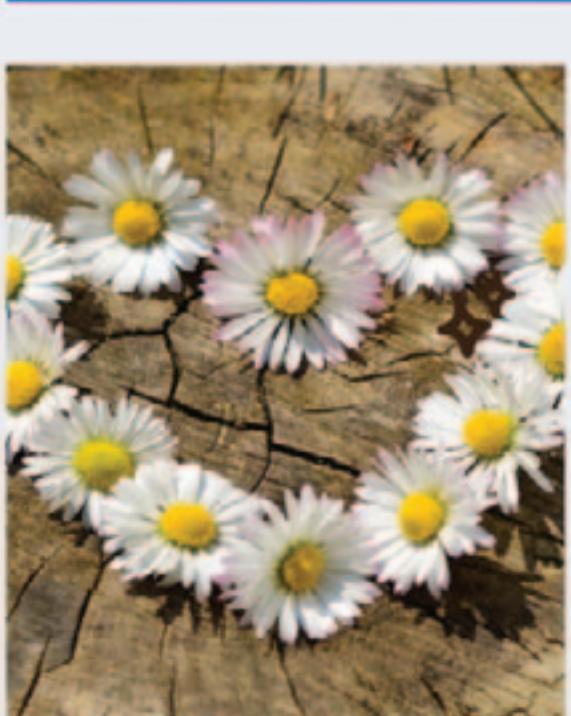
1. 개인

온라인성향검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1대1상담
진로상담, 성격상담, 심리상담

2. 팀

팀빌딩 (MBTI / 버크만)

3. 강연/강의 (학교/복지센터/센터/중소기업/기타단체)
진로 / 스트레스 / 마음건강기획_테마에 따른 / 성향·성격 등



C-Lab
청년마음건강연구소
문의) 네이버 톡톡/인스타 DM
메일 - clablab_10@naver.com
문자 전화 - 070-8098-1834

“문화예술이 스며든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 만든다”

오는 5월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개최 ... 천안성성아트센터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충남 천안시가 천안성성아트센터, 천안시립미술관 등 시민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 고품격 문화 도시' 구축에 나선다.

천안시는 민선8기 5대 시정목표 중 첫 번째인 고품격 문화 도시 실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4,674억 원을 투입 2024 천안 K-컬처박람회를 개최,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 생활 속에 스며드는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확장하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로 가득찬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독립의 성지에서 문화 성지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개최

2024 천안 K-컬처박람회'가 오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독립기념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13만 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성공적인 원년을 알린 천안 K-컬처 박람회는 올해 의미있는 변화를 시도한다.

‘글로벌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뮤지컬, 푸드, 웹툰 등 5개의 전시관을 신설하고 가장 대중적인 K-컬처 콘텐츠인 K-POP 경연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박람회 운영시간 조정, K-POP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연과 월드 오디션, 한복대여소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공연 프로그램은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한복 패션쇼, 뮤지컬 콘서트, 라디오 공개방송, 어린이 뮤지컬, 천안외국인문화축제, 프린지 공연 등 다채롭게 준비한다.

부대 프로그램은 K-컬처산업컨퍼런스, 천안문화도시페스티, K-아트존, 키즈 체험존, 웨딩존, K-유니브존 등으로 구성된다. 또 독립기념관 야간 경관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개최 일정에 맞춰 독립기념관 단풍나무숲길 야간개장을 실시하고, 베란못 주변에도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박람회장을 야간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성성아트센터 등 건립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박차 천안시는 지역 특색이 반영된 문화시설을 구축해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고품격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급증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대응하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전

시해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존 문화시설을 새롭게 단장한다. 노후화된 신부문화회관을 철거하고 2027년까지 새로운 다중문화예술 복합공간인 ‘천안신부문화회관·천안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한다. 노후화된 천안신부문화회관을 새롭게 탈바꿈해 공연장, 전시실, 미술실,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편의 문화예술시설로 구성한다.

올해는 유튜브를 활용해 ‘천안시립문화관’과 ‘취북현 서예관’을 조성해 시민의 문화향유와 평생교육 증진에 나선다.

또 오는 2026년까지 ‘서북구문화원’을 이전 신축한다. 서북구 성환읍 일원에 연면적 1,531.6㎡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강의실, 교육장, 연주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시민 일상속으로 스며든 문화·예술 ... 365일 연중 다채로운 공연 실시

천안시는 365일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행사가 이어지는 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민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천안시립 예술단은 정기·기획공연 등 올해 360여 회의 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천안시립예술단은 3월 교향악단의 ‘美완성 아름다운 원성’을 시작으로 16회의 정기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기획공연(18회)으로는 ▲우리동네음악회 ▲학교에서 만나는 예술가 ▲장르별 무대 공연 ▲문화예술 상설공연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주제·초청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공동주택 등 마을공동체로 찾아가는 우리동네음악회는 천안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영화음악, 오페라 공연과 천안시립 흥미평론단의 버나풀이, 천안웃디리풀풀, 사자춤, 줄타기 등 복거리로 구성됐다.

지난해 15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음악회를 실시한 결과 총 세대수의 72.1% 해당하는 1만 75명이 우리동네음악회를 관람했으며 선착순 모집에 400여 개 공동주택 단지가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시는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정기공연 시 희당 50석, 연간 800여석을 지원하고 점자, 큰글씨 프로그램 등 공연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청년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활동 기반을 조성과 천안시립예술단인력의 인정적인 수급하기 위해 ‘객원 출연자 인력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화독립도시 천안, 시민 문화자주권 선언...법정문화도시 지정...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천안시는 올해까지 시민의 문화자주권 실현에 주력한다.

시는 2019년 제1기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올해까지 5년간 국·도비 포함 200억 원을 투입해 문화적 도시재생, 글로벌 브랜드 구축, 사회적 경제 육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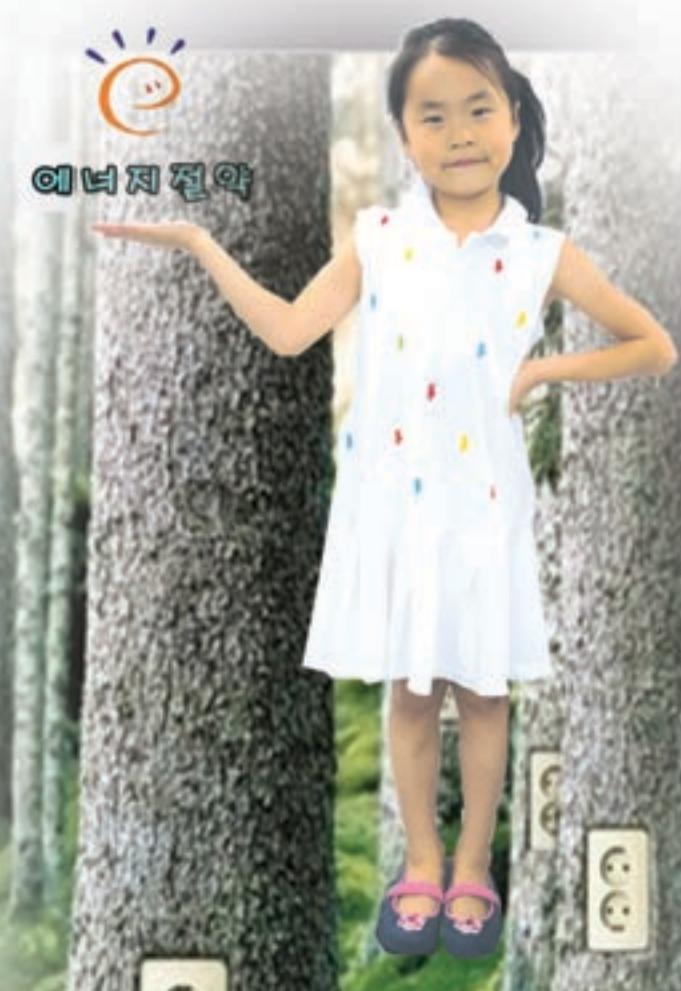
시는 문화창의인력 양성, 문화콘텐츠 창업 및 유통, 문화예술공간 장관 등 3개 분야 11개 문화산업 특화를 통해 소득이 창출되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한다. 오는 5월에는 신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문화브릿지’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지역사전시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전시관을 통해 시민에게 천안시의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고증을 제공하고 천안 균형대 생활사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천안만의 향토적 정서를 고취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증기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발맞춰 문화 기반 시설 확충하고, 문화 향유를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일상에 문화예술이 스며든 도시,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정정●

기탁식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12일
오후 3시 시
교육청 교육
감실에서 열
리는 한반도
리어온스클럽 및 SK텔레콤 트
플래티넘 티켓사에 참석.

업무 협약식



박희조 동구청
장= 12일 오
후 4시 30분 구청장 접견
실에서 열리는 통합돌봄
기본서비스업무 협약식 참석.

근무상황점검



서철모 서구청
장= 12일 오
전 11시 서구
운전자쉼터에
서 열리는 서
부모범운전자
회 1분기 근무상황점검 참석.

공감소통day



정용재 유성구
청장= 12일
오후 6시 30
분 어은동 일
원에서 진행
하는 직원소
통화합 프로그램 '공감소통day'
에 참석.

민주평통 대전서구협의회
2024년 1분기 정기회의 개최

서구(구청장 서철모) 민주평통일
자문화회 대전서구협의회(회장 이창
종)는 구청 구봉산홀에서 자문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1분
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
다.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 주민 포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직전 행사(자문위원 플래시몹 공
연, 협약식) ▲협의회장 회의사 ▲전 분
기 의견수렴 결과보고 ▲정책 견의의
견수령 ▲전문가 강연 및 질의응답 ▲
분과위원회 사업계획 발표 및 주요 안
건 심의·의결 ▲보궐위원 위촉장 전
수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평통 차
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과 북한
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해 수행해야 할
실천적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
으며, 민주평통 대전서구협의회 자문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이영철 북한이
탈주민이 직접 '북한의 최근 정책 변화,
탈북민 정착과 북한 인권문제'를 주제로 강연해 큰 눈길을 끌었다.

또한, 민주평통 대전서구협의회는
박세웅 운동지원자문위원장이 회장으
로 있는 성심·대전 장례식장과 '장례
식장 이용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과 그 가족의 장
례식장 이용 시 빈소 사용료 50% 할인
제공 등이다.

중구,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집중점검

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점검과 홍보활동 ·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 관리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빈)는
오는 1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
법행위 발생에 대해 집중점검과 예
방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구는 안영동 등 개발제한구역(A=27.64㎢) 내 ▲대형건물 및
시설의 무단 신·증축 등 위반행위
▲축사·창고·비닐하우스 등을
공장·작업장·사무실·주택 등으
로의 불법 용도변경 ▲불법적 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市,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마련 · 체납자 법적대응 강화 · 취약계층 지원



대전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
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대전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
표액을 497억 원(지방세 333억
원, 세외수입 164억 원)으로 정하
고, 강력 징수 및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시·구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대전시는 올해 체납액 징
수를 위해 체납자 현장 조사 및
체계적 체납관리와 더불어 압류
부동산·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처분 및 각종 압류 채권에 대
한 신속한 추심 요구 등 체납처분
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최근 몇 년간 경기침
체에 따른 징수 여건 악화로 체납
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
으로, 이월 체납액은 2023년 대비
225억 원(15%)이 증가한 1,744억
원(지방세 925억 원, 세외수입
819억 원)이다.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최근 어려운 징수 여건
을 고려해 이월체납액의 28%로

설정했다.

지방세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
소득세(30%), 자동차세(20%), 재
산세(13%)가 58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63%를 차지하며, 세외
수입은 과태료 체납액이 469억
원으로 체납액 중 57%를 차지한
다.

대전시는 본격적인 징수 활동
에 앞서 지난달 28일, 시·자치구
세정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4년 지방세정 운영 계획을 논
의하고, 체납액 정리방안 및 체납
징수 목표의 달성을 위한 시·구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대전시는 올해 체납액 징
수를 위해 체납자 현장 조사 및
체계적 체납관리와 더불어 압류
부동산·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처분 및 각종 압류 채권에 대
한 신속한 추심 요구 등 체납처분
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

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광공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체납차
량 번호판 영지 등 행정제재를 강
력히 추진하고, 고의적인 납세회
피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
해 회피 사례를 전면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
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지 유예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 회생을 위한 납
세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호걸 대전시 세정과장은 "세
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
운 여건을 감안,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
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노인복지사업에 200만원 지원

한밭새마을금고

랑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
다.

대전 한밭새마을금고(이사장
천순상)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구청 갑천누리실에서 서구 고
정동 어르신의 문화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에 200만원을 지원

했다. 한편 한밭새마을금고는 취약
계층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청
소년 문화복지사업,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좀도리쌀 기부,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다양
한 지역사회공헌사업을 펼치며,
2023년 한해에만 약 7억원의 복
지사업 예산을 지출하는 등 대전
세종충남지역을 대표하는 금융
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송병배기자



대덕구 덕암동 새마을문고회

이불 등 세탁물 빨래 봉사 진행

대덕구(구청장 최종규) 덕암동

은 덕암동 새마을문고회(회장 임
경숙)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세탁물 빨래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덕구는 2024년 행복이음
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역대학연
계 청소년 4차산업 특강 ▲모두
함께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
육 ▲마을결합시범학교 공모사업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내
고장 대구 미술교육 과정 ▲마을
교육활동가 연방 강화 교육 등 동
구만의 특색이 담긴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되도록 봉사활동을 이어가겠
다"라고 밝혔다.

김태영 덕암동장은 "봄을 맞아
소외계층의 궂은 생활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솔
선수범해주신 덕암동 새마을문

고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라며 "덕암동도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분들
을 위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최선
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경숙 덕암동 새마을문고회회
장은 "작은 정성 있지만 지역의
어려운 주민과 홀몸 어르신께서
쾌적한 생활을 하시는 데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

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합동단속

서구, 운전자 의식 제고·안전한 교통문화 확립 추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시청역
네거리에서 대전둔산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
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합동

단속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이륜자동차
의 범행 위반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의 무분별한 운행과 무단 방지 증
가에 따른 운전자의식 제고와 안
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추진
됐다.

현장에서는 번호판 오염 등 경



사용 가능하다. 행사제품 구매 후
다음달 28일까지 모바일로 전송
되는 알림톡을 통해 상품권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차주 목요일에 개
별 발송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봄철 타이어 교

체가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행사 대상
은 한국타이어의 플래그십 타이
어 브랜드 '벤ту스(Ventus)', 세계

최초 풀 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
어 브랜드 '아이온(iON)', SUV 전

승병배기자

우리/동/네

'졌지만 잘 싸웠다' 천안시티FC, 청주FC에 아쉬운 역전패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친화 일촌기업 업무협약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박미라)는 지난 7일 지역 내 30여 개업체와 여성친화 일촌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주지에스씨넷, 주내추럴푸드시스템, 청담하늘체육원 등 30여 개업체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여성친화 일촌기업은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 일터를 조성하게 된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 여성친화 일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새일여성 인턴제, 기족친화 인증기업 컨설팅, 기업환경개선 등을 안내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삼거리로타리클럽, 컴퓨터와 모니터 전달

천안시꽃밭에 후원물품 전달

국제로타리클럽 3620지구 천안삼거리로타리클럽(회장 이상복)이 지난 7일 천안시꽃밭원장이 충길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전달했다.

후원 물품은 오는 4월 개소 예정인 상추 수경재배 공간인 '소소한 농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상복 회장은 "사업을 확장해 새롭게 출발하는 천안시꽃밭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기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원장은 "소소한 농장 개소를 앞두고 필요한 물품이 많아 지원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컴퓨터 등을 후원해준 천안삼거리로타리클럽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꽃밭은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다.



하나은행 쌍용동지점, 쌍용3동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천안시 쌍용3동(동장성경길)은 11일 하나은행 쌍용동지점(지점장 조훈경)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천안문화재단, 2024년 생활문화동호회

공간지원사업 공모 진행

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안동순)은 생활문화 활동의 확대와 민간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생활문화동호회 공간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은 3,700만 원을 투입해 연습 공간이 필요한 공연 분야 동호회에게 민간 시설 및 공간을 41개소의 대관료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천안 거주자 또는 지역 활동하는 공연 분야 생활문화동호회다.

공간지원사업 참여 동호회 모집 신청서 접수는 18일부터 22일까지며, 전자우편(surisuri@dac.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문화재단 누리집(www.dac.or.kr) 열린마당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다 유료관중 기록, 천안시민 축구열기 뜨거웠다

프로축구 K리그2 천안시티FC가 홈 개막전에서 충북청주FC에 이쉽게 역전패했다.

김태완 감독이 이끄는 천안시티 FC는 10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홈 개막전에서 충북청주 FC에 1-2로 패했다.

전반 26분 모따의 선제골로 앞섰으나 모따와 파울리노가 각각 전·후반 퇴장으로 주요 공격수가 부재한 가운데 후반 35분 충북청주 이강한에게 골을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다.

2명이 퇴장당하면서 8명의 필드플레이어로 경기를 운영했으나, 후반 추가 시간에 충북청주 이민형에게 역전골을 내주면서 결국 경기는 대단했다. 이날 홈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총 5,576명으로 최다



으로 기록했다.

천안시티FC가 홈경기에서 이쉽게 패배했지만, 천안시민의 축구 열기는 대단했다. 이날 홈경기를 찾은 팬들은 총 5,576명으로 최다

유료관중을 기록했다.

이날 홈경기에는 시민, 축구 팬뿐만 아니라 천안시티FC 구단주인 박상돈 천안시장과 정도희 천안시 의회 의장, 한남교 천안시체육회장, 한동률 천안시도시공사장, 이

기호 천안시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해 천안시티FC를 응원했다.

이와 함께 홈 개막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축구 스커프를 겨루는 스킬 캘린지 이벤트와 슈팅·트래핑 체험존 등을 운영했으며 선수단 사인회와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하나 네컷' 활용부스로 선수와 하나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상돈 구단주는 "2명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투지를 보여준 천안시티FC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열정적으로 뛸 수 있도록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통 정

중간보고회



박상돈 천안시장
= 12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수도권전철
청수역 외 3개역 신
설 사전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 참석.



천안시, 성남면 파크골프장

18홀 공모사업 선정

천안시는 충청남도 주관 '파크골프장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충남도는 천안을 포함한 광주·보령·아산·서산·논산·태안 등 총 7곳을 파크골프장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성남면 파크골프장'은 도비 3억 원 등 총 15억 원을 투입해 제5일반산업단지 공원부지 4만 7,092㎡에 18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착공한다. 시는 성남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뿐 아니라 올해 백석면 파크골프장(36홀), 풍서천 파크골프장(18홀)을 준공할 계획이다.

정해선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천안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충남중기청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글로벌 유형)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배창우)은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 유형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와 구체화, 브랜드·디자인, 해외 바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트랙 중 하나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발된 60개팀은 팀빌딩 프로그램을 거쳐 1차 오디션을 치르게 되며, 1차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30개팀은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1차 오디션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퍼시널 오디션에서 선발되는 10개팀은 최대 4천만원의 스케일업 자금을 추가지원 받는 등 사업화자금을 총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유형의 주관기관인 주엠와 이소센티컬퍼니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인프라)을 활용해 참여기업에 보육공간, 글로벌 역량진단, 글로벌 팝업스토어와 직·간접 투자 등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배창우 청장은 "최근 뷰티, 푸드 등의 분야에서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스몰 브랜드들의 약진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라이프스타일과 로열브랜드 혁신기업인 기업 기형 소상공인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시장을 넓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 정책연구활동 본격 시동

간담회...연구모임의 활동 방향 및 운영 계획에 확정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지원)이 3월 11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연구모임의 활동 방향 및 운영 계획에 대해 확정했다.

대표의원인 이지원 의원은 회의에 앞서 <심벌마크는 지역의 고유성, 정체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자긍심,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심벌마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 연구모임은 이지원(대표의원)과 원)·정도희·김철환·유수희·류체국·김영한·김강진 의원이 참여하며, 이례적으로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이 연구모임에 참여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3월

의 상생 발전과 협약 공동 대응을 약속했으며, 천안시 통합 선거 대체위원회를 출범하여 본격적인 선거체계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천안시민들께 천안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능력과 도덕성을 겹비한 국민의힘 천안 일꾼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천안 전 지역



25일(월) 2차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설문조사 문항 등 실

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천안=이정복기자

엄소영 천안시의원, 5분 발언...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안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은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담은 노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하고 활약하는 노후생활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2년 뒤 2026년 1월에 시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7년부터 '고령친화도시'를 정의하고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를 통해 40여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중으로, 엄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천안시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였다.

천안시는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활동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이동의 인지·언어·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가족구성원의 결핍이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외부 활동,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 문화생활 제공 프로그램인 '주말에 뭐하니'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또래

2024년 1월 내국인 기준 천안시 인구 65만여명 중 65세이상의 인구는 8만6천여명으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참고로 국제연합(UN)에서는 노인구 비율이 7%면 '고령사회', 14%면 '초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엄의원은 천안시가 최근 <2024년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이듦의 변화에 맞춰 시민의 욕구와 선호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생활기반 및 환경 조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고령친화천안> 브랜드를 제안하면서, 다양한 계층별 친화도시 타이틀을 건 명품도시 천안에 걸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요청하였다. 특히 고령친화는 특정 세대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커뮤니티)를 표방하도록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천안시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 문화활동 지원

아동의 인지·언어 향상,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 등 위해

천안시는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활동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이동의 인지·언어·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난독증이나 한글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읽기 않고 듣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한입에 떠먹여 주는 오디오북'은 드림서포터즈 자원봉사자가 직접 책을 읽는 목소리를 녹음해 아동들에게 제공한다.

또 오는 12월까지 초기 애착형성

이 과정으로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놀이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풀지(樂之)' 프로그램은 기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영유아 정서발달 도모를 위해 물감·거품·물·흙·가루오감 놀이 등을 지원한다.

천안시는 문화활동 지원이 취약계층 아동의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천안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 드림스타트는 매년 400여 명의 아동에게 3



대전 중부경찰서 '중부 자율방법 연합대' 치안간담회

협력방법 강화 위한 치안간담회

대전중부경찰서(총경 김재식)는 지난 11일 3층 사장홀에서 대전 중부 자율방법 연합대장을 비롯한 임원진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방법 강화를 위한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치안간담회에는 적극적인 자율방법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 충주동 여성자율방법대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그간 중부서와 중부 자율방법 연합대가 공동의 노력으로 실시한 활동에 대한 경과 공유와 그에 대한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식 중부경찰서장은 "자율방법대원님들께서 생업이 있음에도 지역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며 활동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성광 중부 자율방법연합대장은 "앞으로도 중부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보를 제언하고,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임무인 예방순찰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서는 자율방법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자원봉사 시간 인증 ▲응급처치 교육 ▲치안 추악 지점 학습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이소씨설공단, 공영주차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신규 설치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호섭, 이하 공단)은 공영주차장 6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신규로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산군 '건축물해체 신고(허가) 의무화' 안내자료 배포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절차 홍보

예산군은 지난 2020년 5월 1일 제정·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이 2022년 8월 4일부로 일부 개정되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무단 해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물 해체 관련 안내 자료를 작성하여 읍·면에 배포 했다.

건축주(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 전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을 해체 신고(허가)를 해야 하고, 해체 후 30일 이내에 건축물을 해체 공사 완료 신고를 해야 하며 소규모 건축물,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도 면적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다. 또한, 건축물 해체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추후 건축물 대장의 말소 등 원활한 행정 업무가 가능 하므로 건축물 해체 공사 전 반드시 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절차에 맞는 신고(허가)를 득한 후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행정 절차의 홍보를 통해 건축물 해체 신고 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며 "건축물 해체 허가의 경우 해체 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 건축과 건축 행정팀이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박제화기자

산림청, 4월 말까지 전국 102곳에서

반려나무 56만 그루 나눠드려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전 국민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4월 말까지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102개소에서 약 56만 그루의 묘목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외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조합에서는 지난 2월말부터 조합원이 생산한 우수한 묘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국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국 128개소에서 '나무시장'을 운영중이다.

지역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및 '나무심기' 행사와 '나무시장' 운영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http://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복기자

충남도 내 교통사고 절반이상 '65세이상 고령자'

비노인 대비 교통사망 확률 5배, 관계기관과 특별대책 추진키로

충남도 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이상이 65세이상 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지난해 충남도 내 노인교통사고 사망자가 57%에 이르고 있다며,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협을 학처 노인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충남 노인의 경우, 인구

비율은 21%, 교통사고 비율은 22%로 유사한 수치이나, 교통사망자는 무려 57%를 차지하였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사망에 이를 확률이 비노인에 비해 약 5배였다.

또한, 노인 면허소지자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나 교통사망사고의 기해 운전자 중 노인 비율은 38%로 비노인 운전자 대비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노인 운전자의 기해 비율이 높은 점을 해결하려면 노인이 운전을 자제하는 문화를 조성함과 아울러

첫째, 신체적 특성상 같은 충격이 리도 피해를 크게 입는 점과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능력이 떨어져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는 농사일·병원진료 등을 위해 보행이 잦은 특성이 있는데, 특히,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가 많아 사고가 나면 다수가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노인 운전자의 기해 비율이 높은 점을 해결하려면 노인이 운전을 자제하는 문화를 조성함과 아울러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논의가 관계기관 간에 심도 깊이 진행되어야 한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충남의 심각한 노인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관계기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여 조민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을 당부했다.

이정복기자

아산소방서, 제22대 총선

대비 화재안전조사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오는 3월 22일까지 지역 투·개표소 116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시민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위험 요인 사전 제거 ▲투·개표소 설치 건물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파난·방화시설,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아울러 선거기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투·개표소 인근 소방차 배치, 예방순찰 강화 등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산=리량주기자

daejeontoday.com

대전서 또 '전세 사기' 고소 13건 접수...수백억대 피해 추정

대전에서 또 다시 전세사기 피해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유성구 학하동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인 A 씨에 대한 고소장 13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고소인들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며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지역에서 다가구 건물 여려 채를 보유한 A 씨가 고소 건 이외에도 다수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피해 금액을 최대 300억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초기 단계이고 고소장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협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전세사기대책위원회 등 피해자들은 "어떤 집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모두 전세사기로 속단하면 부동산 시장이 더욱 경직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주소방서 발전위원회, 오는 29일까지 공주 초등학생 대상

봄철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경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주시 관내 초등학생 누구나 봄철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자유주제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신청은 3월 29일까지 참가신청서와 포스터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고 소방서는 자체 심사 후 수상작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과 수여할 계획이다.

조동현 공주소방서 발전위원장은 "어린이들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봄철 불조심을 생활화하고 안전 문화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주소방서 소방행정과(☎ 041-851-02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공사장 화재예방은 작은 불티부터"

금산소방서, 봄철 화재예방에 주의 기울여 줄 것 당부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우)는 공사장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시 불티 비산, 담배 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봄철 화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사장은 스티로폼 단열재 등 다양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재재가 많이 쌓여있어 작은 불에도 빠르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원천적으로 점검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

논산=김성구기자



증기사랑나눔재단, 증기중앙회와 '잔주강의 집' 방문 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전달

증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증기중앙회(회장 김기문) 임직원과 함께 지난 8일 서울 강서구의 어르신 보호시설 '잔주강의 집'을 방문해 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매탯도움과 함께 시설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산 아르니페스트 APT 계약자들 본격 활동 시작

건설사 법정관리에 대한 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아산시 방죽동에 건설 중이던 아르니페스트 APT 계약자들은 지난 10일, 온양 4동 소재 민들레 밥상에서 계약자 110여 명과 기존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천년종합건설(주)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동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관을 의결하고 아산 아르니페스트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계약금 납부하고 중도금 4차까지 대출 처리된 계약자들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2025년 5월 입주가 불가능해지고 건설사에서 납부하기로 한 대출 중도금 이자를 계약자들이 이달부터 납부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약자 모임을 만들

기 시작한 지 10여 일 만에 설립됐다.

설립을 준비한 계약자들은 이달 초 각종 SNS 활동과 인터넷 카페 모임을 만들며 활동을 시작했고, 현수막 게시판 등을 통해 계약자들을 모집하여 10여 일 만에 전체 계약자 498명의 절반이 넘는 270여 명의 계약자 명단을 확보했으며 지난 7일, 준비모임을 갖고 임시 의장단을 구성과 처리 안건을 정했다가 SNS를 통해 참여 신청한 계약자 110여 명이 참석해 이날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前아산시자율방법연합대장 출신인 박노식씨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임원진과 대표자회를 구성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장으로 선출된 박노식씨는 수락 인사말에서 "498명 계약자 모두의 공의과 급진적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지역의 정·관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계약자들의 입장과 상황을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공정률을 관련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도시주택 보증공사와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회에 참석한 아산시의회 이기애 부의장과 명노봉 의원은 "계약자분들의 편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아직 찾지 못한 200여 명의 계약자들을 찾고자 인터넷 카페와 SNS 활동에 전력을 다하기로 하고 지역 언론사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계약자들에게 포털사이트와 SNS에 아산 아르니페스트 입주자 모임이나 아산 아르니페스트 입주예정자협의회를 검색해 방문해 주기를 요청했다.

아산=리량주기자

33개 의대 교수협, 교육부 등 공수처에 형사 고발...“입시 농단”

“교육부·복지부·행안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의 위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두고 “고등교육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11일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교육부장관 등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절차와 관련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이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대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운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느닷없이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은 대학구조 개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단”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법원은 협의회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정해 국가폭력을 막아야 한다”며 “현법재판소에 현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공수처에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은 현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1월이다.

이정복기자

당진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반기 상담 주간

오는 4월 5일까지 4주간, 관내 초·중·고 학생·학부모 대상

당진교육지원청 Wee센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4주 동안 2024년 상반기 상담 주간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신학기를 맞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돋우고, 학교폭력·자살위험 등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된다.

상담 주간에는 개인 상담뿐 아니라 ▲ 자기 이해를 위한 심리검사 ▲주간 상담

진행이 어려운 학생·학부모를 위한 야간 상담 ▲찾아가는 집단상담 ▲생명 존중 찾아가는 상담 주간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 학생과 학부모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한다.

이한복 교육장은 “신학기 상담 주간 운영을 통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적응지원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2024 세종청소년기후행동협의회 참여자 모집

세종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 위한 청소년 협의와 실천의 장 마련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기후위기 대응과 실천 촉구를 위한 ‘2024 세종청소년기후행동협의회’ 참여 학생을 오는 3월 15일 12시까지 모집한다.

‘2024 세종청소년기후행동협의회’는 미래 세대의 주인이 청소년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체와 환경을 배려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는 청소년 자치 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이 있는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생이며, 총 20명을 모집한다.

참여 학생들은 세종시의 기후위기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조사학습, 환경보전과 생활다양성 주제 현장탐방 등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참여 학생들의 학습과 현장탐방 결과는 11월에 세종시의 기후위기 대응보고서로 발간되며, 참여 학생들은 한후 SNS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세종=김태선기자

하나 ‘2024 세종청소년기후행동협의회’ 모집 담당자: ☎ 044-320-2532에게 문의하면 오내를 받을 수 있다.

‘2024 세종청소년기후행동협의회’는 월 1~2회 주말에 운영되며, 세종 지역 환경·생태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학습과 현장탐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학생들은 세종시의 기후위기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조사학습, 환경보전과 생활다양성 주제 현장탐방 등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참여 학생들의 학습과 현장탐방 결과는 11월에 세종시의 기후위기 대응보고서로 발간되며, 참여 학생들은 한후 SNS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세종=김태선기자



“북적북적 토요일! 우리 가족은 도서관에 간다” 공주교육지원청공주도서관(관장 윤석용)은 지난 9일, 2024년 상반기 유아·초등학생·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4강좌를 개강했다.

국제교육원, 초등학생 영어 일일캠프

논산내동초 50여명의 학생들 시작으로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운영

금산교육지원청, 관내 16개 초등학교 생존수영 담당 교사 대상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협의회 실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은 3월 7일 금산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16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 수영장 사용일자를 배정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생존수영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산교육지원청은 “생존수영 외에도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금산학생수장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 16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 수영장 사용일자를 배정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생존수영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산교육지원청은 “생존수영 외에도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산=이정복기자

충남교육청, 방송통신중 2교·방송통신고 2교 총 319명 입학생

2024 방송통신중·고 입학식 힘찬 출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3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방송통신중·고 등학교의 입학식을 마치고, 2024학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힘차게 출발했다고 밝혔다.

3월 9일 제6회 흥상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 제4회 흥성고부설방송통신고 등학교 입학식을 개최하여 각 53명, 75명의 입학생이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3월 10일 입학식에서는 제7회 천안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 51명, 제36회 천안중장고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140명의 입학생이 중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지원자의 지역 분포는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예산군 등 14개 시·군으로 천안, 홍성, 아산, 예산 순으로 지원자가 많았다. 방송통신중학교는 110명 지원에 104명이 선발되었으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275명 지원에 215명 선발되었다. 학생들의 성비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지철 교육감은 “인생에는 늦은 때가 없다. 특히, 배움이 그려 하다”라며 “기습 벽장 회망의 새봄을 맞아 319명 입학생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부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알고 도전정신을 가지고 당당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입학생을 격려했다.

예산교육지원청, 직원들에게 ‘장미꽃’ 전달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양성 평등 실천



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제 116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미꽃을 전달하는 기념 행사 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양성 평등을 실천하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예산 교육 지원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박재희기자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우리반 만들기 지원

대전교육청, 학생 생활지도 학급 게시용 교육 자료 배포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관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신학기 학생 생활지도 학급 게시용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11월 밝혔다.

학생 생활지도 학급 게시용 교육 자료인 ‘행복하고 슬기로운 학급 생활’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언어폭력 하지 않기,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사이버 폭력 하지 않기, 디지털 성폭력 하지 않기, 사이버 도박하지 않기를 한 눈에

김정환기자

볼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신학기에 각 학교에서는 해당 자료를 학급 게시용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물론, 책임 의식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산시, 권역별(서남권, 중앙권, 동부권)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 대상자 모집

아산시가 권역별(서남권, 중앙권, 동부권)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및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

서비스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민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건강 고위험군이다. 단,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 판정자는 제외된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 돌봄 전담수행인력(공중보건의, 방문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이 건강 평가를 시행하고, 개인별 건강 계획에 따라 12주간 맞춤형(만성질환, 영양, 운동 등) 집중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된다. 또한 건강, 복지 등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 통합 창구 역할도 이루어진다.

아산=리량주기자

중앙아시아 '수출길 확대' 시동

道, 5월 1~3일 카자흐스탄 시장개척단 가동...참가 기업 모집

총남도가 중앙아시아에 대한 수출길 확대를 위해 펼을 걸고 나섰다.

도는 5월 1~3일 카자흐스탄에 해외 시장개척단을 파견키로 하고,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국토 면적 272만㎢로 우리나라의 27배에 달한다.

2022년 기준 인구는 1970만 명, 국내 총생산(GDP)은 2258억 달러, 1인당 GDP는 1만 1440달러다.

이 나라는 특히 유라시아 대륙 중심에 위치한 교역 경유지로 최근 둘동량이 크게 증가하며, 중앙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또 중산층이 투tiği 3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2년 기준 1인 당 구매력평가지수 (PPP)는 3만 달러 이상으로, 인근 몽골의 2.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경제 성장을 최소 5.3%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수출액은 16억 5509만 8000달러, 수입액은 48억 6947만 1000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해 충남에서는 카자흐스탄에 4678만 5000달러를 수출하고, 3억 6257만 8000달러를 수입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유학이나 이주 노동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우호적이며, 한국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카자흐스탄 해외 시장개척단은 도내 중소벤처기업 15개사를 모집, 경제 도시인 알마티에서 수출 상담회와 바이어 상담을 진행토록 한다.

사후에는 현지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시장 진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이며, 참가 품목 제한은 없다.

다만 휴폐업 기업, 대기업이나 대기업 출자회사,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22일까지 충청남도 온라인 수출 지원 시스템 ([cntradechungnam.go.kr](#))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도는 신청 기업에 대한 현지 시장성,

특히 및 국제인증 보유 정도, 수출시장 개척 의지, 수출 준비도 등을 평가해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해외 시장개척단은 K-제품 진출 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지 수출 전문기관의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해 바이어를 기업과 연결하는 등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시장개척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 투자통상정책관(041-635-3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환기자



"귀농귀촌 충남 청양으로 오세요!"

청양군, 2024년 귀농귀촌인 소통간담회 열려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8일, 김돈곤 군수를 비롯해 청양군 귀농귀촌협의회 강병민 회장, 협의회 회원과 청년귀농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귀농귀촌인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월에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전입, 주거, 사회적관계, 정책 등 4개 부문 23개 항목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귀농귀촌협의회 및 읍면 산업체를 통해 300명을 조사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입 전 거주지는 대전·세종·충남 31.8%, 서울 24.2%, 경기 21.9% 순으로 나타났다.

전입 형태로는 타지역 도시출신이 44.6%, 청양군이 고향이었던 사람은 31.5%, 타지역 출신은 13.8% 순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으로 귀농귀촌 결정 이유로는 퇴직 후 전원생활을 위해 36.3%,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21.2%, 세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11.3% 건강상의 이유로 10.6% 순으로 많았다.

청양 거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66.7%로 보통 25.6%, 불만족 7.7%보다 많았다.

주요 만족 사유는 자연환경 및 경관이 아름다워서 61.1%, 이웃이 마음에 들어서 19.9%, 생활비가 저렴해서 9.9%로 등이었다.

반면 불만족 이유는 생활 여건이 나빠서(문화시설, 의료시설, 마트 등) 57.4%,

교통이 불편해서 34.0% 순으로 높았다.

타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은 13.6%로 응답했으며, 이주 이유로는 생활 편의시설 부족 43.7%, 자녀 교육·양육 25.0%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귀농·귀촌 교육 및 다양한 정착 프로그램 지원이 34.1%, 농지 농업시설·농기계 등 영농자금 지원 21.9%, 주택구입·임대·자금 지원 18.1%, 귀농·귀촌 홍보 및 상담 16.6% 순으로 높았다.

그동안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움 25.7%, 지원자격과 절차가 까다로움 21.9%, 일회성 지원에 그칠 20.4%, 지원 금액이 적음 1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4년 청양군 귀농귀촌 정책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그동안 귀농·귀촌 정책에서 이어왔던 점과 앞으로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또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한 아이디어 등 군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군은 이날 귀농·귀촌인들이 제안한 사업과 의견들을 검토해 청양군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앞으로 청양군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양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의 목소리를 군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공주시 왕릉교 상징가로 조성사업 완료

백제문화이음길 조성사업 통한 관광 클러스터 구축



한국 코카-콜라·환경재단

'바다쓰담 캠페인' 참여 단체 모집

"바다의 쓰레기를 닦다"

한국 코카-콜라가 환경 재단과 함께 해양 환경 보호 활동인 '바다쓰담 캠페인' 참여 팀(단체 포함)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해양 환경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12개 팀에게는 각각 5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2024 '바다쓰담 캠페인' 참가 팀은 참신한 활동 기획, 지역 커뮤니티 구성을 통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정화활동의 효과성과 향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쓰레기 수거 데이터 확보 및 실태 조사를 위해 정화 활동 과정에서 조사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참여 단체 간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다쓰담 캠페인'은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년째 진행 중이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다양한 해양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총 44개 팀(단체)을 지원하고, 그린리더 8084명과 268개 협력기관(학교,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조직 등)이 참여한 388회 활동을 통해 약 10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서산시 2024년 축제심의위원회 위촉식·회의 열려



충남 서산시가 8일 2024년 축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위촉식은 흥순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축제전문가,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등 총 1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축제심의위원회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서산 관광 발전을 위해 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위촉식 이후 흥순관 부시장의 주재로 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서산시 지역축제 지원, 위탁 기관 및 단체 선정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축제 추진 시 현장 예산 사용과 협조 사항 등을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축제는 주민화합은 물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큰 힘을 차지하는 문화유산·자연·관광자원으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5월 류방택별축제, 6월 팔봉산김자축제, 7월 서산6쪽미늘축제, 8월 삼길포우역축제, 10월 해미읍성축제, 10월~11월 서산어리굴젓축제 등 6개 축제 개최를 우선 확정했다.

또한 축제 담당자와 각 축제추진위원회들이 참여한 소득창출 지역축제 육성을 위해 우수축제 벤치마킹, 컨설팅, 집합교류 등 아카데미를 진행해 전 국민이 찾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산=김정한기자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 높여

홍성군, 잔류농약 사전검사 무료 지원으로 지역특화 농산물 가치 상승



홍성군은 잔류농약 사전검사를 통해 페퍼, 포도, 마늘 등 지역특화 농산물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며 전국 최초 유기

농업 특구'로서의 명성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 모든 농업인에게 무료로 진행되며, 농약 안전 사용관리에 대한 현장 교육도 병행하여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함께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홍성군의 노력이 둇아오고 있다.

검사 신청은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630-9799)을 통해 가능하며, 전문관들이 생산 현장을 방문해 출하 전 시료를 수거하여 463종에 대한 잔류농약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는 14일 이내에 제공되어 농가의 빠른 대응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홍성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은 지난해부터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농산물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의 '잔류농약 분석 수립 도시형'에서 11종 분석 모두 '만족' 평가를 받는 등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김정환기자



당진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 실시

관내 35개 마을 대상...경운기·관리기·예초기 등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7일 송악읍 복운 2리장을 시작으로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관내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분무기 등 농업인이 자주 사용하는 소형 농업기계의 자가 정비 방법과 수리 방법을 알려주고,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수리에 필요한 부품은 농가당 1만 원 미만의 부품을 3만 원 한도 내에서 무상

당진=최근수기자

동정

신임경찰 임용식



박경규 아산시장
=12일 오후 2시
30분 경찰대학에
서 열리는 '경찰
대학 졸업식 및
신임경찰 임용식'
에 참석.

제2차 본회의



오성환 당진시장
=12일 오전 10시,
제108회 당진시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실습교육



가세로 태안군수
=12일 오전 10시
태안군교육문화
센터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실습교육'에 참석.

임시회 개회식



이종필 청양부군
수=12일 오전 10
시 청양군의회 본
회의장에서 제
297회 청양군의
회 임시회 개회식
에 참석.

청양군 '할 때는 확실하게'

업무 집중의 날 운영

청양군(군수 김돈관)이 오는 13일부터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업무 집중의 날'을 운영한다.

'업무 집중의 날' 운영은 업무 몰입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전 시간을 활용해 업무 집중 환경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업무 효율성과 만족감까지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된다.

군은 매주 수요일을 '업무 집중의 날'로 지정하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업무 집중 시간'을 설정했다.

이 시간 동안에는 타 부서 방문, 개인적인 전화, 인터넷, 흡연 등 사적인 용무를 자제하도록 하고 지정된 날에는 불필요한 회의를 지양해 업무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민원 처리와 긴급을 요하는 업무 등 부서별, 상황별 특성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점을 파악하여 확대·정착할 계획이다.

김돈관 군수는 "업무 집중의 날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직원들의 만족도는 곧 행정 효율과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며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약해 드리며,
체계화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T

숨은자원 찾고 환경도 살리고 행사 추진

우/리/동/네

태안군, 농어촌에 방치된 각종 폐기물 수거해 환경 정화·재활용 촉진 도모

태안군이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 및 한국환경공단 태안사업소, 지역 주민들과 함께 8개 읍·면 전역에서 '2024년 제1차 숨은자원찾기' 행사를 추진한다.

군은 3월 11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6일에 걸쳐 8개 읍·면에서 숨은자원찾기 행사를 갖기로 하고 11일 태안읍 태안종합운동장 인근에서 기세로 군수와 군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숨은 자원 찾기' 행사는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 폐기물을 수거해 자연 및 생활환경을 깨끗이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된다.

태안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재활용 차량(집계차) 및 수거물품(그



물망, 재활용 봉투)을 지원하는 한편, 수거된 폐비닐과 농약 빈병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병류·폐지·철캔류·플라스틱·철류·의류·비료포대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재활용 장려금을 지급 한다.

아울러, 민간단체 주도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순환 의식을 확산시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하는 등 변화하는 지역 환경 조성을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11일 태안읍을 시작으로 ▲12일 소원면(송현리 구매

읍장) ▲14일 남면(인하대연수원 앞) ▲18일 원북면(이원간척지) 및 이원면(이원방조제) ▲22일 근흥면(신진대교 구 매립지) ▲27일 안면읍(두에게 공원) 및 고남면(보건소 앞) 순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통해 태안의 깨끗한 환경을 군민과 관광객 분들께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이번 행사를 참여해 자원 재활용과 지역 환경 개선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통해 폐비닐 168톤, 농약 빈병 41톤, 재활용품 35톤을 찾았고 1925톤의 쓰레기도 함께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최근 5년간(2019~2023) 총 수거량은 1만 9132톤에 달한다.

태안=김정한기자



면천은행나무 목신제 열려

당진시, 마을의 안녕과 주민 평안 기원

당진시는 지난 10일(음력 2월 1일) 면천읍성 객사 일원에서 오성환 시장을 비롯한 채수영 면천은행나무회 회장, 면천은행나무회 회원과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천은행나무회 주관으로 2024년 면천은행나무 목신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한 면천은행나무 목신제는 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강신례, 초헌례, 축원문 낭독, 애향례, 종헌례, 사신례 순서로 진행되었다.

면천은행나무는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 장군과 딸 영랑의 효심이 깃든 수령 1,100년의 나무로써 2016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당진시는 은행나무의 생육환경 개선 및 모니터링을 위해 매년 보호 시술 및 영양 공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면천은행나무는 면천지역과 주민들을 지키는 수호목이자 자연유산이다."며 "앞으로 면천읍성 복원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화상병 예방 위해 개화 전 약제 방제

당진시, 사과·배꽃(잎) 눈튼 직후 반드시 방제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 전 방제'를 반드

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화 전 방제'는 사과, 배 꽃

(잎) 눈이 튼 직후 등록된 약제로 방제하는 것으로, 방제 시기는 지역별 과수 생육 상태에 따라 다르다. 센터는 현재 기상 상황을 기준으로 3월 중순에 방제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화 전 방제' 약제는 화상병 약제 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해 농가에 직접 배부될 예정이며, 약제 방제 후에는 농약 빈 봉지 및 약제 방제 확인서를 작성 후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약제 방제 미이행 시 화상병 발생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약제 방제 시 주의 사항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지키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 고속분무기(SS기) 또는 동력분무기 등을

활용해 방제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약제는 배의 경우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무기동계 화합물'이며 사과의 경우 '보르도액'으로 다른 농약과 혼용 시 약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쓰아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14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3년 연속 사과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있어 농가들이 '개화(開花) 전 약제 살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예찰과 전정 작업 시 소독 등을 이행해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시동

신체·문화·진로 등 다양한 분야 지원

태안군청소년수련관이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생활과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지난 6일 '솝딱 속딱 훌링' 비누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4월부터 공예와 방송댄스 등 2024년 태안군청소년수련관 2분기 프로그램 진행에 들어 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청소년들의 취미 및 신체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청소년수련관은 지난해 총 47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신체·문화·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특히, SWOT 분석 및 욕구조사 등 종합적 분석에 따른 지원을 마련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는 등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분기 프로그램은 4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태안군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며 ▲토탈공예 ▲레진공예 ▲방송댄스 ▲화과자 만들기(2개 과정) ▲솔리디움 체험(2개 과정) 등 7개 과정이 운영된다.

태안군청소년수련관은 해당 과정에 관내 초3~고3 청소년 총 76명을 모집키로 하고 3월 22일 오후 5시부터 25일까지 4일간 흡폐이지를 통한 접수에 나설 계획이다. 과정별 10~12명을 모집하며 화과자와 솔리디움은 1회, 토탈공예와 레진공예는 각각 5회와 8회, 방송댄스는 11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군은 이번 2분기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취미 및 신체활동 영역 확대와 더불어 가정의 달에 걸맞은 소중한 경험도 함께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기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청소년수련관이 지역 청소년들과 보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4월부터 시작되는 2분기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추가입주자 모집

청양군, 오는 18일~20일 까지 신청 접수

청양군(군수 김돈관)이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127호 중 추가 입주자 34세대와 예비 입주자 45세대를 추가 모집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4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2023년 10

월 첫 입주를 시작한 127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다. 117호는 일반모집으로 총 2채례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10호는 지역 사회통합돌봄사업으로 연계해 단기보호가 필요한 한에게 의료와 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할 목

적으로 청양군에서 운영중이다.

이번 입주자 추가모집은 34세대(26㎡·30호, 36㎡·4호)로 3.18.(월) ~ 3.20.(수)까지 접수기간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의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및 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인터넷, 모바일, 현장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접수처는 청양교월 10아파트

관리사무소이며, 현장 접수일은 3.20.(수) 10:30~15:00까지이며 접수시간(12~13시)은 제외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6세 이상 무주택자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종자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24,100 만원 이하로 그 중 자동차 기액은 3,708만원 이하임을 유의해야 한다.

청양=정상범기자

정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회



최원철 공주시장= 12월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전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회 참석.

교통안전 캠페인



김동일 보령시장 = 12일 오전 8시 한내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석하고, 오후 1시 40분 공주국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2024년 기초지방자치단체장 1차 재난안전관리 교육에 참석.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이완섭 서산시장= 12일 오후 2시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참석, 오후 3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농협 서산지지부 책가방 험복 험복, 오후 5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주류영 투자협약 험복.

업무협약식



박범인 금산군수= 12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애경산업(주)에서 열리는 복지사각지대 밭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



에너지 미래산업 아카데미 교육

보령시가 그린에너지도시 보령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에너지 미래산업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등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기후변화 및 신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계획됐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되는 교육은 총 15회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에너지 및 미래산업에 관심 있는 간부 관무원 및 실무직원이 교육을 수강한다. 교육은 에너지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소양 함양을 위해 신에너지산업, 미래신산업, 에너지전환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구성됐으며,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한다.

김동일 시장은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시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4개월간 진행되는 교육을 기반으로 보령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밭굴과 추진에 힘써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산불 주원인인 불법 소각행위 무관용”

공주시, 산불 가해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불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등 산불 원천 차단에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원철 시장은 11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주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불법 영농활동과 이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오후 정안면 문천리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면서 휠카와 소방차량, 인력 등이 긴급 투입돼 56분만에 진화했다.

최 시장은 “각 읍면동을 중심으로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조심 홍보

물을 설치하고 산불감시원 등을 활용해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시는 5월 15일까지 불법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17개소(본청 1, 읍면동 16)를 운영하며, 산불방지에 위한 종별 대응태세에 돌입했으며 산불방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서산시, 540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부착

도로변 전신주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대상… 도시 경관 개선

충남 서산시가 11일 도로변 전신주의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에 540개의 불법광고를 부착방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부착방지판’은 테이프, 스티커 등의 접착제가 잘 벗지 않도록 처리된 방지판으로 각종 시설물 전면에 입혀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했다.

시는 미관 개선을 위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방지판을 제작하고 대신을 디자인·제작·설치하고 대신을 디자인·제작·설치하고 대로변에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일반도로, 생활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나눠 각 국간마다 디자인을 차별화 방지판을 설치했으며 오염에 따른 외관노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깊은 회색 테이프·스티커 등의 접착제가 잘 벗지 않도록 처리된 소재로 제작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상습

부착지역을 파악하고 연차적으로

부착방지판을 설치해 도시 미관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

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

어 기겠다”고 말했다.



세계여성의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학장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계기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유엔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 군의 14개 여성단체 대표 및 회원,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평등 문화확산과 여성 인권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기념식은 ‘평등하고 폭력없는 행복한 금산’을 주제로 △샌드아트 영상시청 △결의문낭독 △기념사 및 축사 △3.8 여성의날 퍼포먼스 △장미와 빵 나눔 등이 진행됐다.

같은 날 협의회는 청진회관에서 금산타미널 인근 사거리까지 탄소중립 캠페인 거리 행진도 전개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올바른 재활

용품 분리방법,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활용하기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안내했다.

김영자 회장은 “여성이 여야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노력을 실천할 것”이라며 “생활 속 노력을 통해 이를다운 지구를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산군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불안과 불편함을 갖지 않는 안전한 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공주시, 지역 청년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지원

군복무 장병 614명 상해·질병 등 보장 실시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지역 청년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군 복무 장병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공주시가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는 청년 상해보험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다.

올해 보험 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로, 이 기간 군 복무 중인 현역 병 614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공익근무요원과 직업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 30만원 ▲수술비 20만원 ▲정신 질환 위로금 100만원 등이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진용 미래전략실장은 “군 복무 장병 상해보험은 군 복무 장병은 물론 가족의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제도”라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우/리/동/네

보령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신규모집

보령시보건소는 스마트행정의 일환으로 AI·IoT인 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2년차 추진하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자가 측정한 건강정보를 보건소에서 모니터링해 건강상담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년도 스마트폰 활용 참여율은 80%에서 25명으로 확대 모집하며, 참여 대상은 하위·만성질환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스마트폰 소지자이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전화(☎ 930-5971)에 약 후 직접 방문해 스마트폰 앱 활용법 교육을 받으면 된다.

사업참여가 결정된 어르신은 스마트 건강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스스로 혈압·혈당 수치를 체크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7가지 건강 미션을 수행하거나 전문가의 건강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의지 향상을 위해 건강 미션 성공자 및 6개월 서비스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폰이 없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는 화면형 AI 스피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형평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은 시공간 제약 없이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며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게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금산군청 사이클팀 종합우승

금산군청 사이클팀이 올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금빛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경남 창녕군에서 열린 2024 창녕투어 전국도로 사이클대회 종합우승에 이어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전남 강진군에서 열린 제71회 3.1 철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것.

(사)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하고 전남자전거연맹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군청 사이클팀은 △단체종합 1위(최형민, 장경구, 김화랑, 정재현, 이진구) △남자 일반부 개인종합 1위(장경구, 2위(최형민) 등 성적을 기록했다.

또, 최희동 감독이 최우수 감독상, 안창민 코치가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아 전국 최상위 기량의 사이클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2000년 창단된 금산군청 사이클팀은 매년 충남을 대표해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등 맹활약하고 있다.

금산군청 사이클팀 최희동 감독은 “금산군과 군민들의 성원으로 대회 종합우승을 이룰 수 있었다”며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하고자 선수들의 기량 증가에 최선을 다해 올해 남은 경기에서 최고의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청 사이클팀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출전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인천에서 현지 적응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순천향대, 31개국 외교 담당자 초청 연수 개최

개도국 및 중견국 외교관 및 외교 담당자 대상 '2024 KF 외교관 한국언어문화연수'

순천향대(총장 김승우)는 KF(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기화와 협력해 오는 5월 3일까지 8주간 개도국 및 중견국 외교관 및 외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 KF 외교관 한국언어문화연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KF 외교관 한국언어문화연수는 네덜란드, 미니카공화국 등 31개국의 외교관 및 외교 담당자 중 국제부대에서 활약할 한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KF(한국국제교류재단)가 주관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순천향대 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유병욱)와 한국어교육원(원장 정윤경)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연수는 해외 각국 외교관의 한국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통합적 한국 이해와 언어 능력 향상 및 한국문화와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연수생들은 오는 22일까지 2주간 국립외



교원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국제관계, 문화, 보건 등 전반적인 한국학 특강을 수강한다. 이후 순천향대 캠퍼스로 이동해 6주간 글로벌 밸리지에 머무르며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 회화 수업을 중심적으로 수강하고, △독립기념관 및 세종정부청사 견학△K-pop, 태권도, 도예 등의 한국문화체험△국별 보고/액션 플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환영식에는 순천향대 김용하 연구산학부총장, KF 이종국 기획협력이사, 유병욱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정윤경 한국어교육원장 등을 비롯해 주한필리핀대사, 주한조지아대사 등 11명의 각국 대사를 포함한 총 24명의 주한 외교관과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문화국 심의관, 전문관, 국립외교원 소속 사무관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역량 강

화를 위한 참가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환영식에서 김용하 연구산학부총장은 보건, 의료, 한국어 등 그간 대학이 중점적으로 수행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이번 연수에서 각 국 외교관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본 연수를 통해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각 국의 글로벌 관계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경험을 되길 바란다"라고 격려사를 전했다.

한편, 순천향대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아세안 8개국 공무원 초청 연수'에 이어 이번 외교 담당자 초청 연수를 진행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과 본국을 이어주는 지한(知韓) 인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산=리랑주기자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동아리들의 발대식 진행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관장 이미경)는 지난 9일,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 소속 청소년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동아리들의 발대식을 진행했다.

청소년자치기구의 참여를 보장하고 소속감을 형성하여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참여한 청소년 자치기구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상상'과 중등 댄스 '레그너', 고등댄스 '혜분', 미용봉사 '3GO', 유기동물보호캠페인 '누리보듬', 보컬·랩 '18K', 밴드 '릴링', 보드게임 'YOUR TURN', 특수분장 'PERSONA', 초등난타 '두동탁', 초등댄스 '두둠쳤' 등 모두 11개의 동아리들이 참여했다.

이번 청소년발대식은 청소년자치기구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바람직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주=정상범기자

한국 임산물, 도쿄 국제식품박람회에서 '뜨거운 반응 보여'

산림청, 곤드레·김말랭이 등 우리임산물 일본식품 시장 공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일본 도쿄 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에서 수출임산물을 홍보관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쿄 국제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식품박람회로 행사기간 동안 약 85개사의 해외구매자(비아이)가 우리 임산물에 관심을 보이며 수입 상담을 위해 임산물 홍보관을 방문했다.

임산물 홍보관에서는 버섯떡꼬치, 김말랭이 크림치즈말이, 흥시 스무디 등 시식 행사와 함께 알밥, 산양삼 젤리 스틱, 표고 스팸 등 우리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여 해외구매자 및 현지 소비자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임산물 홍보관을 방문한 해외구매자들은 "곤드레국수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비건 인증도 받아 다양한 계층에서 인기가 많다. 또한 한국 김말랭이는 말랑

하고 쫄깃한 식감과 뛰어난 단맛으로 일본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박람회에서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임산물 시식 후기, 제품의 포장 디자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향후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업협력관은 "지난 해 초파, 산양삼 등이 인기를 끌며 우리 임산물의 일본 수출액이 전년 대비 73% 가량 증가했다"며 "수출 유망 제품을 발굴해 한류와 결합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수출업체 및 출판(페키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외 판로를 확대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독립기념관, 행안부 주관데이터

평가전 분야 '우수' 등급 획득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등 2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우수·보통·미흡 3개의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독립기념관은 관리체계를 제외한 전 부분에서 만점을 받아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관리체계·공동활용·데이터분석·역량문화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민간기업(LG U+)과 협업하여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관람객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관람 동선을 개선하는데 활용한 성과가 인정되었다.

천안=이정복기자



지역주민 초청 프로젝트 경기 관람 행사 대전시 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배)은 8일 '지역주민 초청 배구경기 무료관람'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전연고 삼성화재 프로배구단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갖자는 취지로 개최하게 되었다.



아산시 '이세영 선생 비롯 지역역사인물 기립 것' 지난 8일, 아산시 청소년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열린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독립운동가 이세영생에 재조명 및 생가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박경귀 아산 시장은 "독립운동가 고광 이세영 선생 등 지역의 역사인물들을 기리는 사업을 꼭 원수하겠다"고 밝혔다.



청양군, 2024년 노인대학 개강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8일,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24년 노인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청양군 노인대학은 (사)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지회장 전석호)가 주관해 청양읍, 정선면 2곳에서 연말까지 주 1~2회 소양교육, 인문학 특강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타이어, 30년 장기근속여행 환송회 진행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대표이사 이수일, 이하 한국타이어)가 11일 오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이준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송영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제조담당, 김주형 한국타이어 문화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년 장기근속여행을 떠나는 시원 및 사원기록을 대상으로 환송회를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 면천공립보통학교 3.10 학생독립만세운동 기념식 개최

충청남도 최초의 학생주도 독립만세운동, 후손들에 의해 재현



충청남도 최초의 학생주도 독립만세운동인 면천공립보통학교 3.10 학생독립만세운동 제17회 기념식 및 재현 행사가 11일 면천면 일원에서 지역 주민과 학생 등 3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105년 전 3월 10일 악관도 되지 않은 원용은, 박창신, 이종원 면천공립보통학교 학생 등은 자비로 마련한 돈으로 현수막과 태극기를 직접 만들고, 독립의 노래를 등사해 배부하며

학우들과 함께 면천 일대에서 대학독립만세를 외치며 당당히 행진했다.

비록 일제의 저지로 중도 해산되었지만, 면천공립보통학교 만세운동은 서울의 3.1

독립운동을 목격한 학생들이 귀향해 독자적으로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학생독립운동사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당진 지역 항일역사에 도화선이 떨렸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행사는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당시 선열들을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개최되었으며 ▲독립선언문 낭독 ▲3.10 학생독립만세운동 노래 제창 ▲만세운동 재현 행진 ▲기념탑 현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본 행사에서 지역주민과 인근 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105년 전의 열기를 재현했으며, 특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뜻깊은 자리였다.

당진=최근수기자

'산림복지 전문업 유망사업 모델'

'발굴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현)은 오는 26일 까지 '2024년 산림복지 전문업 유망 사업 모델 발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은 지정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1차 아이디어 심사와 2차 사업계획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 전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잠재력이 있는 산림복지전문업(이하 전문업)이 국민을 대상으로 고품질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시장성과 수익성 창출을 목표로 하는 '교구재 제작형 역진행수업(온라인 선행학습 후 오프라인 강의 진행)' 산림복지 구독 모델'에 대한 사업화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교구·교재 개발, 시범 사업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이 지원된다.

남태현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업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논산시, 3월 학대간부회의 개최... 지방소멸대응 전략 고도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신규사업 발굴·준비에 신발끈 조이는 시간마련



논산시(시장 박성현)가 11일 오전 청내회 의실에서 시 간부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3월 학대간부회의'를 열고 학습사업의 진행 흐름을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24년 논산발기축제를 포함한 굵직한 당면 현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진단했

으며, 특히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발굴사업과 그간 이뤄진 기금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현 시기에 부합하는 공공자 선거증립, 상반기 신속 집행, 신불예방 의제에 관한 실효적 대응책을 공유하는 등 원활한 시정추진에 필요한 행정력 집중의지를 다졌다.

회의를 주재한 박성현 논산시장은 "관행

을 타파하고 지역의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 생각하는 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며 "잔여적 관

논산=김성구기자

시의 향기



김정희 시인의 '코오롱 연기'

유관순 열사를 기리며

일제의 총갈에 무참히 짓밟힌
삼천 리 금수강산 내내 내민족
대한 사람을 일본 사람 만들려고
이름까지 바꿔버렸던 어두운 통로

애타게 독립을 부르짖던 기습속의 한
유관순 열사의 하늘 끝 외침은
아우내장터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한반도 방방곡곡 민족 혼 살아나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애국심

스스로 자기 몸을 토우는
도화선의 불꽃으로 사라지던 님이여

내 한 목숨 비쳐 독립을 되찾고자
죽기를 서슴지 않던 위대하신 열사여!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 목숨 헛되지 않아
위대한 대한민국 바로 섰으니

이젠 우리 가 지켜가겠습니다
다시는 나라 빼앗기는 슬픔 없이
눈 부릅뜨고 똘똘 뭉쳐

이름다운 우리나라 영원히 지키리니
하얀 날개 불은 입술 무궁화꽃으로
해마다 우리 가슴에 피어나소서

시의 향기



박정기 시인의 '순정에 빠진 시'

구름꽃

가을산꽃이 핀다.
하얀 꽃 억새 구름을 덮고
산등성이 구절초 능선을 덮어
떠나는 가을 불들어 맨다

가을산비람이 일면
억새꽃 허얀 솜털 천리를 날고

구절초 향기는 만리를 간다

오늘같이 좋은 날
천상에 바람 일면
저 하늘 구름 꽂고

땅에는 가을꽃이
하늘엔 구름꽃 피어
텅 빈 마음꽃이 채운다

시의 향기



최대희 시인의 '년 별이야'

감꽃

아기 엉덩이처럼
뽀얀 얼굴
꼭 깨물고 싶다
0.1mm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장인의 길

열일곱, 꽃띠의
머리를 잘랐다. 그 아이는
십여 분이 지나도록
거울을 들여다보고
고개를 이리 저리 돌리고

젤을 바르고, 무슨도 빌라보고
다시 머리를 감고
아무리 제 머리를 잡아당겨도
원하는 길이가 아니라고
투덜거린다

몰랑몰랑 달콤한 홍시도

감꽃에서 시작되었다
저 뛰은 감꽃이 떨어져야
열매 맺는 것
단맛을 내려면 열매는 오랜
비바람 속을 걸어 가야한다

미색의 뛰은 꽃.

김용현 법학박사의

생활속 법, 또는 우리들 이야기



김용현 시인

(법학박사·전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이 사회는 눈만 뜨면 변해 있고 그것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하는데, 이를 모두 법으로 만들고 이를 쇄해하고 따르도록 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모든 사회의 발전이나 변화는 이미 법 저 앞에 기다렸는데 이제야 하나 한 가지로 법으로 정하고 따르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법에 의하여 지배할 것을 명정하는 법치주의(法治主義: rule of law,

법치주의의 한계-합리주의 I

야 할 사항들은 참으로 많지만, 필자는) <법이란 그 시대 그곳에서 존재하는 모든 가치, 즉 正義, 道德, 禮儀凡節, 真善忍, 教育, 合目的性, 法的 安定性 등등 이무튼 이 글을 쓰는 가치까지도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를 중에서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強制價値>라고 감히 정 의해 본다(자세한 것은 필자의 <법이란 무엇인가?> 참조).

그런데 이 <법에 의한 지배>에는 한계가 있어, 즉 현실에는 법의 지배(Rule of Law)나 법치국가(Rechtsstaat) 원리로도 지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과 더불어 정당성에도 초점을 두어 그 래도 괜찮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성에 초점을 두어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원래 법치주의는 법을 통해 자의적 통치를 제한하고 법치(法治)를 중심으로 하자는 이념이다. 즉 누구

나(이미 정해진)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치별받지 않으며,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나 (일부이지만) 현재의 법치주의는 법 자체의 내용이나 가치에 관한 판단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형식만을 중시하던 이른바 '형식적 법치주의'였기에 법적 절차를 통해 제정되지만 하면 그 법의 내용이 좋건 나쁘건 간에 문제 삼지 않았는바, 이러한 그야말로 무미건조했던 형식적 법치주의는 결국 실제로 크나큰 부작용을 드러냈는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주변인 제국주의 독일의 나치당의 만행이다. 나치당의 당수였던 Adolf Hitler(1889.4.20~1945.4.30) 국가사회주의 나치 독일의 초대 뿐만 아니라 수권법을 통해 광범위한 입법권(한)을 가졌고, 600만여 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학살한 학살한 행은 결국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제정된 법'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의 한계-합리주의 II > 이어집니다.)

예산군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2024년도 총 사업비 107억원을 투입하여, 도시 계획도로 19개 노선에 대하여 개설 및 정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노선들은 군에서 수립한 "군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및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노선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도시 계획 도로 개설 및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예산 신례원리(수철리 일구) 도로(중2~20호) 외 10개 노선은 2024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삼교읍(중앙로) 도로(중2~22호) 확포 장공사 외 7개 노선은 행정 절차와 손실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사업부터 공사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접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 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군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편의를 제공해 도시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비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 | | | |
|----------|--------------|--------|--------------|
| 발행 · 편집인 | 김 현정 | 회장 | 김 성구 |
| 전화안내 | 042)538-3030 | 기사제보 | 042)538-1601 |
| 구독배달안내 | 042)538-1602 | 광고신청안내 | 042)538-1603 |

논설위원 김우영 · 김성식 · 김종복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료 월1만 5000원

등록번호: 대전기 00017 인쇄처: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E-mail : d-mail@hanmail.net

▶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요망.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16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대전투데이



CAFE 350



대전 서구 만년로65번길 23 1층 T: 042-482-3505